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 가톨릭마산

연중 제29주일



##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가지십시오. 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과부에게는 그 재판관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느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깨닫는 사람만이 그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절실한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기도하며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지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만 희망을 거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느님 말고 따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흔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비꼬면서 기댄다 합니다. 자신이 지닌 돈과 재물, 지위와 재능을 더 믿고 거기에 더 큰 희망과 기대를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느님의 손길보다 자신이 지닌 돈과 재능, 지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나오는 재판관은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과부의 청원에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만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청원을 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 남성 지배 사회였던 이스라엘 안에서 과부의 위치는 내세울 것이 없고, 무력한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착취당하기 쉬운 약자의 위치였습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과부만 보더라도 자신의 청을 들어줄 재판관에게 돈이나, 인맥을 통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가난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바라고 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과부의 이 모습이 하느님 아버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청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오직 끊임없이 청하는 것뿐입니다.



김대열 가브리엘 신부 | 옥포본당 주임

## 주일 진례

제 1 독 서

탈출 17,8-13

화 답 송

©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제 2 독 서

2티모 3,14-4,2

복 음

루카 18,1-8

# 시련의 때를 만나면

홍예성 바울라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시련의 때를 만나면 수천 가지 물음이 솟아난다. 아픔과 원망이 커질 때 용기를 내어 물음들을 밀쳐두고 '하느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내도록 부름 받았을까?' 거듭 주님께 아뢰어 보라고 한다. 그러다 보면 나의 문제가 나를 규정하던 압박감도 차츰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 믿음의 신비로 이내까지 곁들여 배우게 된다.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해도 믿도록 부름 받는 단계들이 있다고 한다.

지난 세월 내가 만난 시련의 때에 나를 도와주려 오신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다. 시련 가운데에 놓인 피해자가 아니라 이 시련을 극복하려는 책임감에 갇혀 어떻게든 헤쳐 나가려고 몸부림쳐 온 것 같다. 이렇게 하느님께 내 마음을 걸어두지 못하는 자존심으로 툭툭 뭉친 나를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할 친구를 만났다.

그는 나에게 시편 공부를 권했다. 성경공부 과정을 온전히 이수한 친구는 1시편부터 권고 말씀을 친절하게 메일로 보내주었다. 그 권고 말씀을 읽고 시편을 읽어 나갔다. 읽는 것으로 부족하여 필사를 시작했다. 한 절을 쓰고 더 욕심을 부려 영문 성경도 쓰며 이해력을 높였다.

시편을 소리 내어 반복해서 읽고 시편 성가집 악보에 대입해서 노래도 불렀더니, 시들이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해주었다. 시편에는 원망의 대상이 없다. 그래서 시편은 나의 이야기가 되어 울림이 점점 더 커졌다. 하느님의 부재를 체험하고 말이 안 나올 때, 말이 끊긴 자리에서 '하느님 어디 계시나요?' 하며 나 홀로라고 탄식할 때가 바로 하느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 주님 앞에 겸허히 기도드리며 시편을 펼치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 힘들다고 아뢰던 마음이 어느 순간 '주님을 신뢰하나이다.'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탄원시를 신뢰의 시라고도 하나보다.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저를 어떻게 하시더라도 전 괜찮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느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소서.'

시편에는 이 땅에서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예들이 다 들어 있다. 우리가 하느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도 모두 들어 있다. 시편의 시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있다. 시인의 탄원에 힘입어 내 속의 감정을 주님께 다 쏟아 놓으니 마음이 안정되며 홀가분해져 진정한 나를 바라보게 되어 의례적으로 하던 고해성사도 깊어졌다. 지난날 내가 감내했던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인내를 배우는 지혜가 필요했고 이것을 하느님께 간절히 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게 일었다. 시련과 고통을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며 그들을 통해 나를 닦고 또 닦아 내가 숭고한 세계 속에 나갈 수 있을 때 나의 지친 영혼은 쉼을 얻고 아름다워지리라.

## 옥포본당 사랑의 모후 Pr. 2,000차 기념 주회



옥포본당(주임: 김대열 가브리엘 신부) 사랑의 모후 Pr.은 9월 28일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사랑의 모후 Pr.은 1983년 11월 4일 남녀 청년 혼성 Pr.으로 창단되었으며, 그동안 4개의 Pr.을 분가시켰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본당 주임 신부, 수도자 및 꼬미시옹 단장 등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사랑의 모후 Pr. 단원들은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이끄심으로 2,000차까지 올 수 있었다며, 함께 감사미사를 봉헌하였다. 그리고 3,000차를 향하여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 31차 청년 성령세미나를 다녀와서...

‘31차 청년 성령세미나’가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성령세미나 참석자의 체험담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 청년 성령세미나를 참석하며 새로운 마음가짐과 이직을 준비하기에 괜찮은 피정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제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미나 첫째 날 저녁 치유기도회에서 자신을 용서하는 전구기도가 시작되자 생각지도 못한 예전의 잘못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고해성사가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저의 죄들이 낱알이 떠오르며 평평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고교 진학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누나와 저를 비교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저를 부끄럽다고까지 하시며 그에 저는 반항과 일탈로 맞섰던 일들, 그리고 아버지와 제대로 화해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이별한 기억들이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저는 한동안 육체적으로 고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냈으며, 아버지는 사업을 접고 어머니의 식당 일을 돕고 계셨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냉랭한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아버지는 “차 조심하고 다치지 말고 일 잘 마치고 오라”는 다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저도 아버지께 내일 저랑 사우나 갔다가 함께 낚시 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버지께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아버지와 더 싸우게 되었던 지난 시간들, 아버지와 화해해 보려고 했지만 너무 늦어버려 영영 용서받을 길이 없기에 저 스스로를 용서를 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 제 기억의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것은 6년 전 뜬금없이 자살을 시도했던 일이었습니다.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평소와는 달리 술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 저 자신을 혹사하며 힘들게 사는 것이 누군가가 나에게 인과응보로 주는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자 벼랑다로 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고해성사를 들으신 신부님께서서는 왜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며, 아버지 산소에 가서 용서를 청하면 아버지도 이미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니 용서하셨을 것이라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고마워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해소를 나와 받은 말씀카드에는 “사람의 길이 제 눈에는 모두 결백해 보여도 영을 살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잠언 16,2-3)라는 말씀이 적혀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안수기도 시간에 저는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안수하시고 고문님께서 등에 손을 얹었는데 성령 안의 안식에 들어가면서 양손이 뜨거워지더니 등뼈를 따라 불로 지지는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간 수치도 높고 허리 통증이 있어 도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허리 통증은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성령세미나를 통해 지금껏 돈만 쫓아다니며, 자신을 혹사하던 잘못들의 원인을 똑바로 보게 하시고 영혼과 육신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세례성사를 받기 이전부터 위험에 처한 저를 보호해 주시고, 늘 바른길로 이끌어 주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4년 전 첫 예비자 교리시간에 신부님께서 “선택이 곧 부르심”이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어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면서 저와 같은 상처로 아파하며 어둠 속을 헤매는 주님의 자녀들을 신앙의 빛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제 결심이 희미해지거나 무너지더라도 주님께서 저를 새롭게 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최수동 마르코(진동본당)



# 계시 1. 전해지지 못한(Unrevealed) 진실이 전해지도록(Revealed)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아버지는 강조하시곤 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다. 그걸 누릴 줄 알면 부자인 거야.”

부는 바람도 공짜, 하늘에 뜬 흰 구름도 공짜,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나무도 공짜, 눈부신 햇살도 공짜였다.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의 자태도 공짜, 그 꽃이 풍기는 향기도 공짜였다. 우연히 만난 아이의 환한 웃음도 공짜,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도 공짜였다. -『아버지는 말하셨습니다』, 2015, 송정림, 에세이

하느님께서 당신 선성(善性)과 지혜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당신 뜻의 신비를 기꺼이 알려 주시려 하셨으며, (가톨릭교회 교리서, 51번) 그렇게 당신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인간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넘어서서 당신께 응답하고, 당신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52번)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1요한 4,8.16) 그 사랑은 으뜸가는 선물로써 다른 모든 선물을 포함합니다. (733번) 당신과 당신 뜻을 ‘알게’ 하시는 계시 또한 ‘선물’입니다. (99, 2059번)

조건 없이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곧 ‘공짜’라고 해서 다 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잊은 줄 알았지? 생일 축하해. ...뭐해? 빨리 풀어봐. ...왜? 맘에 안 들어? / ...이번 어린이날... / ...뭐, 다른 거, 원하는 거 있음 말해봐. / 부산...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내일. / 아빠 시간 나면 다음에... / 아뇨, 내일요. 맨날 다음이라고만 하고, 또 거짓말이잖아요. 아빠 시간 안 뺏을게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부산행〉, 2016, 연상호 감독, 영화

증권사 펀드 매니저로 돈만 보고 살아온 아버지는 딸의 생일날 밤늦게 집에 들어와 비싼 선물을 건네지만 어린이날 준 것과 똑같은 선물을 또 사와 버렸습니다.

1. 주는 이가 성의 없이 선물이랍시고 줄 때,
2. 주는 이가, 받는 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고 제 생각대로만 줄 때,

풍요와 무료라는 두 가지 개념은 세계화 지상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한다. / 오직 희귀성만이 이익을 보장한다! 그러니 희귀성을 만들어내자! 세계화 지상주의자들은 특히 자연이 선사한 무상성이라면 질색이다. 이들은 자연의 무상성을 일종의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견디지 못한다. -『탐욕의 시대』 2008, 장 지글러

3. 받는 이가 선물을 받기 싫어하거나 거부할 때,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마태 13,13,15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마르 7,18. 8,18. 9,32

4. 받는 이가 선물의 가치를 못 알아보고 못 누릴 때,

이런 모든 경우, 선물은,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 ‘예’를 드는 겁니다. - 미사만 안 빠지고 해 ‘주면’ 된다고 여기고 ‘큰소리’치는 사제들, 신자나 자녀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보다 자기 원의를 우선으로 하며 ‘큰소리’치는 사제들이나 부모들, 오로지 표를 얻고 권력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척’만 하며 ‘큰소리’치는 정치가들의 경우가 1,2번일 겁니다. 그런 경우, 선물을 준다면, 책무를 다한다면, 큰소리치면 권위 있는 줄 착각하는 사제, 부모, 정치가들보다, 오히려 받는 이들이, 주는 이들을 배려(?)해 적당히 맞춰줘야 하는 ‘고충’을 겪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은 1,2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받는 이들의 요구 그 이상으로 “좋은 것을 더 많이”(마태 7,11), “성령을 더 잘”(루카 11,13) 주시기 때문입니다. 받는 이의 입장에서, 비신앙인은 3번, 신앙인의 경우는 4번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로써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시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과 사귀시며,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신다.” 이러한 초대에 합당한 응답이 바로 ‘신앙’이다.(교리서, 142번)

게시가 완결되었다고는 해도 그 내용이 완전히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앙’은 시대를 살아가며 게시의 내용 전체를 점진적으로 파악해 가야 할 것이다.(66번)

‘신앙’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존재 전체로, 게시하시는 하느님께 동의를 드리는 것이다.(143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알려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마태 16,17)라고 밝히신다. ‘신앙’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덕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려면 먼저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도와주셔야 하고, 또한 ‘성령’의 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께서는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느님께로 회개시키시며,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고 ‘진리에 동의하고 믿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을 모든 이에게 베푸신다.’”(153번)

게시 종교의 맹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니 온전한 진리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교회가 우월감, 교만함, 의존함, 안주함에 머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진리는 결코 세상의 것처럼 ‘지식’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분께서 건네시는 초자연적 진리는, 인간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동의하며 성령 안에 온전히 자신의 존재 전체를 걸고 머물고자 할 때, 곧 ‘신앙’으로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진리는 “개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것”, “돼지들 앞”의 “진주”(마태 7,6)일 뿐입니다.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햇빛이 가득한 건 / 근래 보기 드문 일 / 오랜 허기를 채우려고 / 맨발 몇이 / 봄날 오후 산자락에 누워 있다 /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 햇빛을 / 연초록 잎들이 그렇게 하듯이 / 활아먹고 빨아먹고 꼭꼭 씹어도 먹고 / 허천난 듯 먹고 마셔 땀지만 / 그래도 남아도는 열두 광주리의 햇빛! -〈허락된 과식〉 나희덕, 시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마태 14,20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기적 이야기는 그분이 일으킨 ‘놀라운 일’이 아닌, 하느님이 선물로써 주시는 은총의 ‘무상성’과 ‘풍요로움’을 보여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하느님은 ‘한없이’, ‘공짜’로 주십니다. 그것을 누리려면, 얻기 힘든 귀한 것들이 가진 ‘희소 가치’가 아닌, 이미 풍요롭게 주어진 소중한 것의 ‘존재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새로운 정신, 곧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된 하느님 나라,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 3,2

교구장 서리 동정

재무평의회

일시: 10월 18일(화) 10:00

일시: 교구청

견진성사

일시: 10월 23일(주일)

장소: 진교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시: 10월 18일(화) 10:00/ 장소: 교구청

주보편집위원회의

일시: 10월 19일(수) 11:00/ 장소: 교구청

소공동체장 연수-진주지구

일시: 10월 20일(목) 13:00

장소: 신안동성당

청년성서 '에파타' 10월 일정 안내

일시: 10월 21일(금) 20:00

내용: 폐제기도와 미사

장소: 교구청 지하 경당

성소육성회 정기 총회

일시: 10월 23일(주일) 14:00

장소: 교구청

교구 전례꽃꽂이회 피정

일시: 10월 27일(목) 10:30~15:30

장소: 대산성당 구한선 타대오 성지

참가비: 1인 1만 원

준비물: 묵주, 운동화,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문의: 성소국 055·249·7061,

회장 010·9286·4493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10월 기도모임

(묵주기도성월 100단 묵주기도 봉헌)

일시: 10월 17일(월) 09:00~17:00

장소: 사파동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점심식사 무료 제공)

문의: 회장 010·9399·5454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작은 마을의 특별한 만남'

일시: 10월 22일(토) 15:00~20:00

15:00~17:00-부스체험 및 전시회 관람

17:00~20:00-가을밤의 특별한 만남(맥

주나눔)/ ▶먹거리 부스 이용시 개인 그

릇을 가져와주세요.

장소: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문의: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055·282·3737

기 타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 (성독)

일시: 10월 22일(토) 10:00~17:30

장소: 부산분도명상의집

준비물: 미사 준비, 성경/ 참가비: 3만 원

문의: 권 벨라벳타 010·3271·0766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23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부문: ①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천주교 관련 학문 전공), ②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 10월 14일~12월 14일까지,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cagl@cbck.kr) 접수

문의: 주교회의 평신도인재양성·기금위원회 02·460·7533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기억할 선종 사제

이강해(스테파노) 신부

2012년 10월 19일



기억할 선종 사제

김영식(알로이시오) 신부

2019년 10월 19일

故 김영식 알로이시오 신부 3주기 추모미사

일시: 10월 19일(수) 11:00

미사 후 추모식 진행합니다.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주례: 서정범(요한) 신부

다큐 <태안> 공동체 상영

일시 및 장소: 창원지구-10월 17일(월) 19:00

메가박스 창원점

일시 및 장소: 진주지구-10월 19일(수) 19:00

롯데시네마 진주혁신(롯데몰)

내용: 한국전쟁 시기 희생당한 태안지역 민간인 피해자들의 아픈 역사

관람료: 무료

문의: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2023학년도 살레시오 성미유치원 신입 유아 모집

입학상당: 10월~11월

대상: 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

접수: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문의: (재)살레시오수녀회 살레시오 성미유치원 055·297·6104(의창구 소담동 소재)

홈페이지: www.sungmi.org

▶차량운행지역- 소담동, 중동, 서상동, 동정동, 도계동, 명서동 두산위브, 팔용동, 북면(감계, 무동아파트단지)

| 성령기도회 | 일시               | 장소        | 주제                                             | 강사                 | 미사 주례 | 문의            |
|-------|------------------|-----------|------------------------------------------------|--------------------|-------|---------------|
| 교구    | 10월 17일(월) 19:00 | 중앙동성당     | 이 시대의 안전한 피난처이신 성모님                            | 손무진 사도요한 신부(대구대교구) |       | 010·5072·5612 |
| 청년    | 매주 (수) 19:30     | 교구청 별관 지하 |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                    |       | 010·6667·7809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성악/기초발성 전문**  
성가, 가곡, 입시, 그로테스크 운영  
상남동 소재

김민형 요셉 010-5110-3039

---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할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재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힐데 로션 100ml, 힐데 크림 100ml, 힐데 스킨 100ml, 힐데 바나 60g, 힐데 샴푸 400ml, 힐데 크림 50ml, 힐데 크림 20ml, 힐데 크림 15ml

롯데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5117-1160 0502-700-1140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4

“공소 순례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순례를 통해 교구장 사목교서 ‘마음을 다하여’ 영적 다가섬을 실천함으로써 신앙새신 운동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위의 글은 마산교구 공소 순례 책 첫머리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올해 초여름 어느 날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임원 한 형제님이 쌍백공소를 방문하시어 자세한 안내와 공소 순례 책, 스탬프, 공소 입구에 붙이는 안내 문구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그 이후로 진주 봉곡동성당의 형제자매님 두 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2022년 9월 18일 현재) 180팀 406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쌍백공소에서는 방명록을 준비하여 한 면에는 성명, 세례명, 본당을 기록하고 다른 한 면에는 간단한 인사말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방명록에는 그동안 공소를 다녀가신 분들이 격려의 말씀, 감사의 말씀 등 반가움의 사랑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몇 줄 되지 않는 인사말이지만 가슴을 따뜻하게 만져 주는 것 같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은 진한 감동으로 기쁨의 눈물을 삼키며 공소예절에 임했습니다. 순례자와 함께 우렁찬 목소리로 응답을 주고받으며 공소 안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한 성가로 주님을 찬미하여 가슴 벅차오르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부부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공소예절을 마치고 인사를 하면서 몇몇 공소 방문을 하였던 소감을 듣는데, 마치 신기한 체험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순례를 하는 동안에 꼭 공소예절에 참여하려는 계획이라면서 이번 공소 순례의 중요성과 이런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 참 잘된 일이라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 외 공소마다의 특성, 모범사례, 신자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 등 이야깃거리도 다양하고 순례자분들의 느낌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똑같은 말은 공소 순례를 하게 된 것이 참 잘된 일이며 기쁘고 즐거우며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진 촬영은 필수 요건이라, 어떤 때는 우리 신자들이 모델이 되어 주기도 하고, 다시 사진작가가 되어서 그분들을 촬영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팀은 제대 앞에 있는 꽃 향아리를 들고 밖에 나와 사진을 찍는가 하면 어떤 팀은 현수막을 만들어 오기도 합니다.

제대 앞 봉헌 바구니에 헌금을 놓고 가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성모님 양옆에 나무 다듬기, 공소 마당에 풀 뽑기 등 공소에 손길이 모자란다는 것을 파악한 듯 봉사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누가 나무를 다듬었느냐고 서로 물어보며 많이 궁금했는데 사비나 회장님이 풀을 뽑고 있는 순례자를 직접 만나게 되던 날 얼굴 없는 천사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공소 앞에 순례자의 차가 3~4대씩 줄지어 서 있고 어떤 날은 성당 승합차를 운행하여 오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며, 이웃사람들도 요즘 공소에 부쩍 손님이 많이 다녀간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어깨가 으쓱해지고 우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소를 다녀간 적이 있었던가 하며 생각합니다. 레지오 팀, 부부, 신심단체 동료, 어르신을 모시고 여행 겸 오시는 젊은이 등 모두 귀한 손님이며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순례자를 맞이하는 우리도 공소를 방문하는 순례자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어둠을 기쁨과 희망으로 채우며 매 순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공소 앞을 지나다 보니 사비나 회장님, 순례자를 기다리는 듯, 아니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듯, 손에 묵주를 들고 기도 중이십니다.

“이제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오니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어 평화롭게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공소 순례 17p 순례 후 기도 끝부분)

내일은 또 어느 성당에서 어떤 순례자가 오시려나 궁금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순례자를 기다립니다.

- 공소 순례 밴드 가입방법: 네이버 검색창 ‘마산교구 공소순례밴드’ 입력 → 가입
- 공소 순례 책자 구입: 010 · 9349 · 5088(교구 평협복음화분과 이한규 안드레아)



이영숙 모니카(합천본당 쌍백공소)

# 저만치 혼자서 피는 삶-김훈 『저만치 혼자서』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성직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의 연속일까, 아니면 평범한 인간의 고통이나 불안함도 있는 것일까. 김훈의 『저만치 혼자서』는 이 이야기를 한다.

무대는 호스피스 수녀원인 ‘도라지 수녀원’이다. 정식 명칭은 성녀 마가레트 수녀원이지만 그냥 그렇게 별칭으로 부른다. 도라지꽃은 흰색이든 보라색이든 테두리에 희미한 검은색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빛깔에서 검은빛으로 흘러가듯이 말년의 수녀들은 이 수녀원에서 죽음으로 건너갈 준비를 한다.

손 안나 수녀는 여든 살이 되어 들어왔는데 이미 정신이 혼미한 상태이다. 그녀는 종신서원 이후에 기지촌 여자들의 삶을 보살피는 일을 하여 왔다. 김 루시아 수녀는 그녀의 룸메이트이다. 그녀 또한 젊어서부터 남해의 먼 섬에 격리된 나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왔다. 깔끔한 성격이지만 어느덧 늙고 병들어 대소변을 지리고는 한다.

오래전 마가레트 수녀는 은둔의 삶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 부상병들과 나환자들, 전쟁고아들을 돌보았었다. 그들이 죽을 때마다 끝까지 동행할 수 없는 아픔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는 했다.

두 수녀도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존재에 동정심을 가졌고, 세상의 불쌍한 이들을 돌보았으며, 평생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들 역시 죽음의 시간 앞에서 불안해하는 한 인간이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김 루시아 수녀와 손 안나 수녀는 둘 다 불면증이 깊었다. 몸이 살아서 병을 감당해 내고 있었다. 병이라기보다는 시간이었다. 새벽까지 의식은 물러가지 않았고, 그 속으로 어둠이 번져서 잠과 깬 구분되지 않았다. [중략] 새들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헤집고 끼룩끼룩 울었다. 수녀들은 잠들지 못하고 오리 울음소리를 들었다. 울음의 꼬리가 찾아들고 오리떼가 다시 잠든 후에도 수녀들은 옆 침대에 누운 사람이 잠들지 않았다는 걸 서로 알면서 뒤척거렸다.

충만한 성령과 인간으로서의 고뇌, 이것이 성직자들의 삶이 아닐까. 그 삶이 거룩한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외로움과 고통을 견디며 스스로 희생과 봉사의 길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병든 몸에서 일어나 오히려 타인을 향하기에 그 삶이 더없이 아름다운 것이다.

저만치 혼자서 핀 성직자의 삶은 우리 곁에서 먼 듯 가깝다. 손 안나 수녀가 수녀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환자를 간호하고, 혼미함 속에서 기지촌 여자들의 무덤과 수녀들의 무덤을 구별하지 못하듯이, 성직자의 삶은 신성한 저곳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지친 이곳과 뒤섞여 있다. 성령과 세상의 고통이 함께하는 삶이다.

입춘 무렵이면 수녀원 주변의 늪지에서 가창오리떼가 먼 바이칼호수로 떠난다.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새들, 그리고 수녀들의 안녕을 빌어 본다.

늪은 수녀들이 입춘의 양지쪽에 앉아서 돌아가는 새들을 바라보았다. 올 때의 무리와 갈 때의 무리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새들이 무리를 짓는 인연은 무엇인가. 새들도 친인척이 있고 벗이 있고 이웃이 있는지, 금년에 온 새들은 작년에 왔던 그 새들인지, 바이칼호수는 얼마나 먼지를 늪은 수녀들은 서로에게 물어보았다. 새들이 하늘에 스며서 가물거릴 때 수녀들은 희미한 새떼를 향해 성호를 그었다.